

## 문화

문화회관 발행 '빛고을 문예'

## 부실한 콘텐츠 성의 없는 제작



지난달 말 열린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을 보러갔던 김정아(40·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로비에 놓여있던 '빛고을 문예 7·8월호'를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빛고을 문예'는 광주문화회관이 발행하는 공연 안내 소식지. 다양한 문화 관련 소식과 지식을 얻고 싶었던 김씨는 '청소년 우울증', '골다공증이란?' 등 문화와 동떨어진 콘텐츠가 담긴 잡지를 보고 다소 황당함을 느꼈다. 김씨는 "20여페이지에 불과한 책자의 콘텐츠를 이렇게 채운 건 잡지를 만드는 문예회관의 무성의함이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대표적 공연장인 문예회관이 발행하는 잡지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빛고을 문예'는 광주문화회관이 매월 4000부씩 발행하는 소식지다. 1·2월과 7·8월 합본호를 발행하고 있는 터라 1년 발행 권수는 모두 10권. 전체 제작비는 4000만원이 소요된다. 잡지는 광주문화회관 우대회원, 관공서, 호텔 등에 배포되며 타 지역 문화기관에도 우편발송한다.

모두 24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되는 '빛고을 문예'는 무용단, 교향악단, 합창단 등 산하 단체인 광주시립예술단의 공연 소식과 각 기획사와 개인들이 신청한 대관 공연 안내 소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약 10페이지 정도가 회관측에서 자체 만들어내는 콘텐츠지만 일부 제작으로 잡지 수준을 떨어트리고 있다. 현재는 일반상식, 생활의 지혜라는 카테고리로 은둔형 외톨이, 고할암 등 각종 질병 예방법과 명심보감 내용등을싣고 있는 상황.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고민이나 아이디어 하나 없이 기발행된 잡지에서 벌써하거나 책에서 짜깁기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조잡하기 짜이 없다.

각 예술단체의 스티글 단원 인터뷰나 회관 기획공연 작품과 관련한 세세한 정보, 문화 칼럼 등 충분히 개발 가능한 콘텐츠가 있음에도 성의 없는 제작으로 지면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회관 관계자는 "기획사들에게 공연 자료를 요청해도 제대로 된 자료를 얻기 어려워 잡지 제작이 힘들다"며 "적당한 콘텐츠를 찾기 힘들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발췌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ju.co.kr



## 올 여름방학엔 '문화 캠프' 떠나요

들뜨기 쉬운 여름방학, 전통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며 뜻깊게 보내자. 이 지역 박물관·미술관 등지에서 풍성한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가족이 함께 광주·전남지역 박물관과 유적을 탐방할 수 있고, 미술관에서 흥미로운 작품을 보며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열린다. 각각 재료비 1만2000원.

또 28일과 29일에는 초등학교 3~6학년을 위한 '북아트 균출책 만들기'(재료비 2만5000원)도 열린다.

방학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게 미리 준비하면 더욱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예술의 향기 그윽=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박물관이 마련한 차량을 태고 무료로 지역 박물관·미술관을 탐방하는 '우리가족 박물관 탐방'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섬진강의 아름다운 물길을 감상할 수 있는 구례·곡성 일대를 탐방한다.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으며 구례 운조루, 섬진강어류생태관, 곡성심청문화센터도 둘러본다.

또 8월 27일에는 광주김치타운, 무등 현대미술관, 우제길미술관, 교육대학교 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등 광주 지역 미술관과 박물관을 돌아본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는 간단한 점심 도시락만 준비하면 된다. 문의 062-570-7048

광주시립미술관도 방학을 맞아 오는 8월까지 부모와 아이가 즐길 수 '신나는 미술관, 여름방학 특별강좌'를 연다.

신인을 위한 프로그램인 '영광진창 현대미술여행'은 윤의 학예연구실장이 난해하기만 한 현대미술을 알기 쉽게 소개해준다. 강의 날짜는 7월 5일과 19일, 8월 9일과 23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오는 23일에는 초등학생들이 닉네임이 인형으로 가족의 얼굴을 만들어 보는 체험 행사를 열고, 9월과 8월 13일에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위한 '보이스토리 3D 입체종이모형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각각 재료비 1만2000원.

또 28일과 29일에는 초등학교 3~6학년을 위한 '북아트 균출책 만들기'(재료비 2만5000원)도 열린다.

## 박물관·미술관 탐방에 닉네임으로 만드는 가족 얼굴

## 초등생을 위한 국악·연극·독서교실 등 행사 다채



이들 행사에 참여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과 로봇을 소재로 한 작품을 보는 '새콤달콤 토이스토리' 전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13-7144.

◇피리를 불끼, 배우가 될끼= 빛고을 국악전수관은 초등생들을 위한 어린이 국악교실을 연다. 이번 국악교실은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6주 과정으로 가야금, 단소, 장고, 판소리, 해금 등 5개 강좌로 나뉘어 운영된다. 모집기간은 19일까지며 인원은 강좌별로 20명内外다. 수강료는 강좌별 4만원. 문의 062-350-4557.

(사)백지청소년사회교육원도 오는 15~16일 화순 안양산휴양림에서 '청소년자신감향상캠프'를 진행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전정신과 자신감, 협동심을 체험하게 한다.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368-8041.

극단 토박이도 방학을 맞아 25일~8월 9일 예술의 거리 민들레소극장에서 '제19기 어린이 연극학교'를 연다.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연극학교는 발

극단 토박이도 방학을 맞아 25일~8월 9일 예술의 거리 민들레소극장에서 '제19기 어린이 연극학교'를 연다.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연극학교는 발

음·발성을 비롯해 신체, 집중력, 상상력, 오감훈련 등으로 펼쳐진다.

오는 8월 9일에는 밤표회도 갖는다. 수강료는 12만원. 문의 062-222-6280.

광주일곡도서관은 오는 25~29일 두 암 3동 작은도서관에서 '방학도서교실'을 운영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를 주제로 '핵폭발 뒤 최후의 아이들'·'소년병과 들판국화'·'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을'·'백장미' 등의 책을 통해 참담한 전쟁과 소중한 평화에 대해 토론한다. 문의 062-510-1633.

/광주일보 김목조 기자 kroh@kwanju.co.kr

## “고미술품 경매 참여하세요”

A옥션 홈페이지, 근·현대 작품 등 150점 내놔

미술품 경매 전문업체인 A옥션은 8~14일부터 홈페이지 (<http://www.a-auction.co.kr>)를 통해 근·현대 및 고미술품 총 150점을 경매한다.

이번 경매에는 하백련·변종하·전혁립·김강용·이일종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며, 100만원 미만의 과격적인 시작으로 출품됐다. 변종하의 '닭'(이하 시각 150만원), 전혁립의 '무제'(100만원), 김은호의 '호랑이'(100만원), 변관식의 '산수'(100만원) 등 눈에 띄는 작품이 많다.

경매출품작 프리뷰 전시는 7~14일까지 전주 A-옥션 전시장에서 진행되고, 다음 경매는 8월 서울에서 열린다. 문의 063-285-7007.

/광주일보 김목조 기자 kroh@kwanju.co.kr

## 지역 젊은 작가들의 도전

광주신세계갤러리, 8월 15일~28일 공모전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지역 젊은 작가 육성을 위한 작가지원 공모전인 오는 8월 15일~28일 제13회 광주신세계미술제를 연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이지역 출신 작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진작가상'은 만 32세 이하 미술대학 졸업 및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자유 주제로 작품의 이미지와 설명, 수상작가 선정 시 전시하게 될 초대전의 내용이 담긴 전시기획안을 신세계미술제 홈페이지 ([gallery.shinsegae.com](http://gallery.shinsegae.com))에 접속하여 제출하여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 1명(상금 1000만원), 우수상 1명, 신진작가상 1명(이상 200만원) 등 최종 수상자 3명을 선정하게 된다. 또 수상자 전원은 해외문화답사의 혜택도 준다. 한편 그동안 1회 순봉체, 8회 이이남씨 등이 이상을 받았다. 문의 062-360-1630.

/광주일보 김목조 기자 kroh@kwanju.co.kr

## 남도 미술인들의 창작 이야기

광남일보 김목조 기자 '행복한 남도 미술산책' 출간

남도 미술인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글을 주로 썼던 김목조(48) 광남일보 총괄부국장이 남도 작가의 작품세계와 생애를 담은 미술 비평서 '행복한 남도 미술 산책'(대동문화재단펴낸)을 출간했다.

이번 비평집에는 근·현대 남도미술의 씨앗을 뿐만 아니라 원로, 중진 작가 등 필자가 연구하고 직접 인터뷰한 작가 84명의 작품 세계를 담았다. 단순한 미술비평서라기보다는 작가의 열정과 끼, 작업집념에 대해 가까이서 보고 들은 기자 이를 생생하게 전하는 디큐멘터리 형식으로 작가의 작품세계와 생애, 창작 뒷 이야기까지 실었다.

김 부국장은 "미술가로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그 감흥을 공유한 세월은 행복한 미술 기행이었다"며 "이번 비평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도 화맥을 이어온 지역 미술인들에게 헌정하는 책이다"고 말했다.

영암출신인 김 부국장은 영문학과 미술사를 전공했으며 조선대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전남대 등에 출강했다.

한편, 오는 15일 오후 6시 갤러리 D에서는 출판 기념회와 수록작가 작품전이 열린다. 문의 062-461-1500. /김대성기자 bigkim@hanmail.net

## 겨레의 정서 배인 시조 공모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30일까지 이메일 접수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회장 조연탁)가 '제9회 전국학생시조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겨례의 얼과 정서가 배인 시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응모작 주제는 자유이며, 지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시조 창작물이어야 한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이메일(gk2222@hanmail.net)로 하면 된다.

초·중·고등부 각 대상 수상자에는 교육감상이 주어지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도 선정한다. 문의 011-638-1924.

/김대성기자 bigkim@kwan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화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금주의 추첨 불건 대표이사 010-7570-7525

금주의 추첨 불